

예배의 또다른 인도자 오르가니스트



박은혜 집사
(예본 오르가니스트)

어느덧 내가 오르간을 시작한지 20여년이 흘렀다. 정말 잠깐 같았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 청년이 되어버린 긴 시간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어릴 적 풍금으로 시작한 나의 교회반주는 파이프 오르가니스트로의 나의 꿈을 키워주는 첫 인연이었다. 그 시절 피아노보다 각 학교나 교회에서는 풍금이 흔한 악기였고 내가 자란 교회에서는 하몬드 오르간이 있어 그 은은한 반주소리에 찬송을 부르곤 하던 기억이 난다.

70년 후반 세종문화회관에서 처음 파이프오르간을 접하곤 바로 이게 나의 길이다 결심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웅장하고 무게있는 신비한 소리는 꼭 하나님의 음성 같았다. 연세대학에서 오르간을 공부하기 시작할 무렵 각 교회는 예배에의 오르간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파이프 오르간은 비싸 엄두도 못 내고 전자오르간을 설치하기 시작했다.(그 당시 경음악용 전자오르간으로 반주를 하는 교회도 많았다.) 따라서 오르가니스트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늘어나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오르가니스트들은 일요일이면 바쁘게 다녀야 했다. 아침예배, 본 예배, 저녁예배 이렇게 3군데의 교회에서 반주하던 때가 생각난다. 지금은 정말 여건이 좋아져 서울지역에만 38개의 파이프오르간이 성전을 울리고 있고 외국에서 공부한 준비되고 훌륭한 오르가니스트들도 많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오르가니스트를 아직 반주자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악기의 제왕이라 불리우는 파이프오르간은 역사적으로 17세기경부터 교회의 악기로 자리 잡았다. 그 소리가 주는 웅장함과 신령한 울림은 흡사 주님의 따뜻하면서도 냉엄하신 그분의 음성과도 같으며 인간의 숨과 호흡하는 것과 같아 종교적 냄새가 충분한 악기이다. 유럽의 오르간들은 교회와 오르간이 일치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여겨지고 예술적, 기계적 가치가 함께 하는 하나의 예술품으로 파이프 오르간을 여긴다. 그래서 오르간을 '만든다(make)'라 하지

않고 '건축한다(build)'라고 한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알렌전자오르간은 파이프소리를 흡사하게 흉내 내어 만든 것으로 전자악기가 주는 경박함을 가꿈은 숨기기가 힘들 때도 있다. 다행히 파이프오르간에 대한 건축이 논의되고 있는 고무적인 회의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립 시 '과연 새문안이다' 말할 수 있는 건축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파이프오르간을 기대해 본다.

오르가니스트는 단순히 반주자 즉 찬양대를 돕는 존재가 아니다. 사회가 없는 예배에 있어서 전체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또한 책임지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르가니스트의 역할을 하나씩 예배를 따라 검토해 보자.

1. 전주

예배 시작 전 약10~15분씩 오르가니스트들은 그 절기에 합당한 곡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돕고 예배를 준비하는 전반적 분위기를 정리하여 준다. 전주란 단순히 작게 치거나 성도들이 잘 아는 찬송가를 쳐 달라는 주문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 취향일 뿐 원래에 갖는 전주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주문이라는 것을 알았음 한다.

2. 찬송인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 그 중 회중의 감사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목소리를 서로 화답하는 잔치요, 기쁨의 표현인 찬송의 인도는 예배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 정확한 전주로, 또한 준비된 기술로 연주해야 하며 이때 생기는 사소한 실수들은 예배의 흐름을 망칠 수도 있다. 가끔(우리교회는 잘되고 있으나) 목사님이 소리를 높여 템포를 이끈 다던가 지휘자가 개인적 템포를 고집해 앞에서 지휘를 하는 경우, 차분히 정돈되어 있는 예배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또한 오르간은 모든 회중의 소리를 들어 올려 주님께 바치고, 또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 왔

습니다 하는 의미로 회중을 압도하는 볼륨을 내어야 한다. 기도 후 나의 신앙고백과 같은 개인적 찬송은 다소 작아도 되나 첫 입례송과 마지막 찬송의 울림은 주님의 음성이라 여겨 질 정도의 힘 있는 소리여야 한다. 간혹 오르간의 볼륨에 대한 이해없는 반론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3. 찬양대와 독창자의 반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인 예배에서 ‘말씀’이 주님의 선물이라면 ‘찬양’은 그의 은혜에 대한 화답이 될 것이다. 잘 준비된 찬양대의 찬양이 예배에 있어 은혜를 받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찬양대의 찬양을 더욱 아름답게 빛낼 수 있는 것이 오르간 반주인 것이다. 예전 성가대는 특히 오르간만으로 반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아까도 언급되었듯이 예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종교적 악기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후 교회 안에서 모든 악기의 사용을 금하였으나 오로지 오르간만이 연주되도록 허락하였다.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좋은 것을 모두 바쳐 아름답게 올린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예배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예배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오르간만으로 반주되어 지는 우리의 예배에 큰 의미를 둘 수가 있다. 독창자가 헌금송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4. 후주

예배가 끝난 후 세상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힘 있게 외치시는 주님의 격려의 마지막 메시지 같은 것이라 생각된다. 아마도 아름답고 시원하게 울리는 그 오르간의 소리가 일주일의 고된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의 등 뒤에, 그리고 췌가에 머물게 되어 힘찬 내일을 기약하게 될 것이다.



4가지로 간략히 오르가니스트가 예배에 맡는 임무를 요약해 보았다.

사실 더 많은 부분 섬세히 계획되고 준비되어 진다. 단 순히 찬양대의 반주만을 준비하는 반주자가 아니라 예배의 인도자로서 그 책임을 다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준비되어 진다. 예배를 앞둔 몇 칠전부터 나는 큰 잔치를 준비하는 들뜬 마음으로 한 주일, 한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그 떨림과 긴장감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 행여 오늘 예배에 잘 못된 부분이 없었나 염려한다. 20살 때부터 벌써 22년을 쉬지 않고 반주 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큰일이고 가장 떨리는 순간이다.

그리고 기도 한다. ‘하나님! 제 소리를 기뻐 받으셨나요. 아직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릴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

(* 필자 박은혜 집사는 안양대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편집자 주)